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인문계B)
출제의도와 문제해설

1. 2012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의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은 '고등학교 교육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사항을 쉽게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보정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출제의 기본방향을 유지해 왔고, 2012학년도 논술고사에서도 이 방향을 유지하였다.

(1)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①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③ 주어진 자료 속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

(2) 통합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다루는 다양한 부분들을 연결시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3)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출제의 방향과 제시문의 유형을 논의해 출제한다.

금번 시험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시험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애썼다. 복잡하고 난해한 지문보다는 비교적 짧고 내용이 분명한 지문으로 출제하였다. 이것은 학생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분석하고 핵심적 논지를 잘 추출해내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뚜렷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논술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기 때문이다. 수리논술문제의 경우 고교 수학교육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제시문과 논제에 사용된 소재와 개념은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익숙하게 다루어지는 것들로 택하였으며, 충실한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였

다. 명제, 함수, 수열, 행렬, 확률과 같은 고등학교 수학교과 과정의 여러 개념을 통합한 문제를 출제하여 통합적인 이해와 논리적 분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제시문의 공통 주제는 '정통과 이단'이다. 제시문들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문헌에서 발췌했다. 수험생은 제시문들에 나타난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에 기초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답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의 현행 학교 교육 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여, 통합교과적 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및 사회과학적 사유,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제시문 (1)은 막스 베버(Max Weber)의《정당한 지배의 유형 (The Types of Legitimate Domination)》에 근거하여 정당성 확보여부에 따른 정통과 이단의 구분, 정당성의 근거,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정당성에 대한 평가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여 출제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글이다.

제시문은 정통과 이단의 차이를 정당성의 확보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정통과 이단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님을 밝힌 후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근거로 전통과 관습, 합리성, 카리스마를 들고 있다. 첫째, 전통과 관습은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지도자의 행위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전통과 관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관성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둘째, 합리성 또한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이다. 사회운동, 종교, 사상 혹은 정치적 인물의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대중은 주어진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합리성의 주요 요소로는 이성에 의한 사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판단, 절차의 존중, 목적의 보편적 적합성 등이 있다. 근대 이후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합리성에 기초한 정당성은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카리스마도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달리, 베버의 경우 카리스마는 일반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초인적 능력을 의미한다. 카리스마는 전통과 관습 및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혁명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나,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 없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약점이 있다. 정당성의 다양한 근거를 논의한 제시문 (1)은 제시문 (2)와 (3)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론적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시문 (2)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실린 최만리 등의 상소문과 이에 대한 세종의 답을 정리하고, 고종 칙령 중 한글 관련 내용을 추출해 낸 것이다. 제시문 (2)의 내용들은 한글이 역사적 변화에 따라 정통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2)의 가**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 103권(세종 26년 2월 20일) 중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왕에게 아뢴 상소문과 이에 대한

세종의 답을 풀어쓴 것이다. 최만리 등은 언문이 비록 옛 글자체를 모방했다고 하나 문자 창제의 원리가 옛 것과 다르고 문명의 나라를 지향함에 언문을 제작한 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가 이두의 사용 원리와 통하고 훈민정음 창제의 뜻이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함임을 들어 창제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최만리 등이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근거는 훈민정음 창제가 전통과 관습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세종은 훈민정음이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며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훈민정음 창제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제시문 (2)의 나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간단히 제시한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공문서 작성이나 역사 기록 등에서는 여전히 한문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었으나 한글의 사용은 점차 확대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한글로 서찰을 쓰는 경우가 늘었고, 《홍길동전》·《춘향전》·《사씨남정기》 등과 같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한문이 공식문자로 사용되었음은 그 시기에 전통과 관습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사용이 확대되어 간 것은 한글 창제 이념이 합리성의 보편적 요소인 보편적 적합성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제시문 (2)의 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실린 고종 칙령 중 한글 관련 내용[고종 31년(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이다. 한글은 조선 중기 이후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문자의 지위를 갖지 못했으나 1894년 11월에 발표된 이 칙령으로 공식 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한글 사용을 규정하는 성문화된 법규가 마련되면서 한글은 합리성에 근거한 정당성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중국을 섬기는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한자를 존중하던 문자의 정통을 한글이 대신하게 되었다.

제시문 (3)은 노만 콘(Norman Cohn)의 《천년왕국운동사 *The Pursuit of Millenium*》(1977)에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단'의 예로 출제의도에 맞추어 재구성한 글이다.

노만 콘의 《천년왕국운동사》는 11세기에서 16세기까지 유럽의 빈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천년왕국'에 대한 환상과 그 배후의 중세사회를 그리고 있다. 천년왕국사상은 본래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 지상에 메시아왕국을 세워 최후의 심판 전에 천년 동안 그곳을 다스린다는 요한묵시록을 근거로 한 하층민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 종말 의식을 나타내는 민중의 구원운동 및 사회운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제시문은 천년왕국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한스 뵘의 사례를 편집한 것인데, 그가 설교하는 메시지에는 만민평등사상에 입각한 사회 개혁적 측면이 있으나 사람들을 흡인하는 그의 매력은 초자연적 기적을 통한 카리스마에 기대고 있다. 그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그의 카리스마가 과장되어 증폭되

었으나, 결정적 순간 그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세인들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초자연적 힘인 카리스마에 의해 또는 그것에 의해 도움을 받아 구원을 성취한다는 천년왕국운동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

3. 논제 해설

수험생들의 독해 및 표현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목표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중요한 논점을 추출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해 내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논리적 사고 문제에서는 제시된 조건들과 모형을 이해하고 논제가 요구하는 논리적 추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생각을 주어진 분량 속에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한다.

논제 1은 제시문 (1)을 400~450자 내외로 요약하는 문제이다. 그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시문의 핵심적인 논지를 파악해서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제한된 분량 안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 능력과 이해한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은 정통과 이단의 근거가 정당성이라는 것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근거로 전통과 관습, 합리성, 카리스마를 들고 있다. 또한 정통과 이단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요약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은 섬세한 읽기를 통해 핵심적 주제와 이 핵심 주제를 주변에서 지지하고 있는 부수적인 내용들을 파악한 후, 그것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해야 한다. 요약문은 수험생이 독창적으로 만든 글이어야 하므로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답안에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중심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답안 작성 포인트>

첫째, 정당성이 정통과 이단의 근거가 되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근거가 전통과 관습, 합리성, 카리스마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정당성의 구체적인 근거인 전통과 관습, 합리성, 카리스마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정당성의 근거인 전통과 관습, 합리성, 카리스마의 특징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정통과 이단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논제 2는 제시문 (1)에 근거하여 제시문 (2)와 (3)을 비교·분석하는 문제이다. 논지를 이해하고 비교, 설명하는 능력 및 논리적인 비판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수험생은 먼저 제시문 (1)의 관점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1)에 의하면 정통과 이단에 대한 평가는 정당성의 확보에 좌우된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2)와 (3)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야 한다.

공통점이라면 제시문 (2)와 (3) 모두 정통과 이단의 판단 근거인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2)와 (3)은 모두 특정한 제도나 사상이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상실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2)와 (3)의 정당성의 근거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 세밀한 비교가 평가의 중요 요소이다. 제시문 (2)에 보이는 '한글'이 정당성을 확보하여 정통이 된 근거는 '합리성'에 있다. 소리에 따라 쓰고 낱글자를 합치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합리적이고, 문자 사용에서 백성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글의 창제 이념이 합리성의 요소인 목적의 보편적 적합성에 부합하였다. 그리고 한글 사용을 규정하는 성문화된 법규가 마련되면서 합리성에 근거한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에 따라 과거 중국을 섬기는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한자를 존중하던 문자의 정통을 한글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제시문 (3)에 보이는 '천년왕국운동'이 정당성을 확보한 근거는 '카리스마'에 있다. 이 운동의 지도자인 한스 뵘은 초인적 능력을 가졌다고 대중들에게 확신을 줌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고 추종자를 규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의 근거가 되는 기적을 보여 주지 못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시문 (3)의 뵘의 사례는 결국 제시문 (2)의 '한글'과 달리 정통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이단의 지위에 머문 경우다.

이와 같이 제시문 (2)는 한글이 합리성을 근거로 점차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단에서 정통이 된 사례이며, 제시문 (3)은 한스 뵘이 카리스마로 인한 정당성을 확보한 듯이 보였으나 결국 카리스마를 상실함으로써 이단이 된 대조적인 경우이다. 이를 통해서 정통과 이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간의 흐름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정당성의 다양한 근거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어 왔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답안 작성 포인트>

첫째, 제시문 (1)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둘째, 제시문 (2)와 (3)의 공통점이 정통과 이단의 판단 근거인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셋째, 제시문 (2) 한글의 합리성 사례와 제시문 (3) 카리스마의 사례를 각각 분석한 후, 제시문 (2)와 (3)의 차이점을 서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성에 근거한 정통과 이단의 문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제 3은 고등학교 인문계 수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수열, 무한급수, 확률변수, 확률분포, 평균의 기본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률분포가 만족해야 할 조건, 확률변수의 평균의 정의를 이용하여 미지수들이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을 도출해야 한다.
방정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찾으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본 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4. 평가 기준 및 유의 사항

수험생들의 독해 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고사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여러 제시문을 함께 묶어서 논제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한다.

논술고사에서는 정형화된 하나의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논제 1, 2의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분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둘째, 분석의 논거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답안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셋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법, 분량 요건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